



영월박물관고을 뉴스레터



2015년 11월 30일 제20호 영월박물관협회 편집 간행

강원도 영월군 영월동로 1121-15 TEL: 033-372-6828 FAX: 033-372-6827 www.ywmuseum.com /yema2013@naver.com

■ <영월박물관 노No, 노老 해설사아카데미> 수료식

영월박물관협회(회장 오석환)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 영월사회복지관에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2015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강원을 물.들.이.다.” <영월박물관 노No 노老 해설사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영월박물관 노노해설사아카데미는 영월박물관 인프라를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를 새롭게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역 해설사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4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20회 수업을 통해서 이론과 12개의 사립박물관 현장답사, 실기체험과 더불어 해설실습을 하였다. 모집인원 30명 중 15명이 수료하였으며 특히 노노해설사들은 이번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 제3전시실과 창작스튜디오 전관에서 열린 2015년 영월국제박물관포럼 기념 <영월 Museum 樂> 공동전시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하였다. 오석환 협회장은 “앞으로 노노해설사들의 연륜을 바탕으로 한 박물관 자원봉사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제도적 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주니어큐레이터양성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응답하라! Past, Now, Future>

강원도교육청과 영월교육청 주최, 영월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응답하라! Past, Now, Future> 주니어 큐레이터양성교육이 ‘우리 지역환경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지역의 환경과 연계한 박물관의 전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11차의 현장답사를 마무리를 짓고 12월 16일 전시발표 및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11월에는 술샘박물관을 비롯하여 총 4개의 박물관, 미술관의 현장답사가 진행되었다.

7일에는 술샘박물관과 화석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관람 후 화석발굴체험을 하였고 21일 캐언 제도자미술관 및 호안다구박물관에서는 나만의 머크컵만들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등 행다례체험 통해 지금까지의 18개의 박물관, 미술관의 현장답사의 아쉬웠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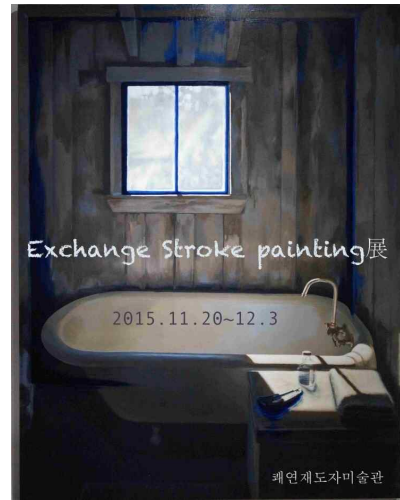
■ 호야지리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 결과물 기획 전시

호야지리박물관(관장 양재룡)은 11월 17일~30일까지 지오토피아관 1층 문헌정보실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영월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강원도지적장애인협회(영월지부)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이 두 단체는 지난 5월에 호야지리박물관과 각각 MOU를 체결한 바 있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비즈로 부모나라 국기 만들기’, ‘영월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담은 에코백 만들기’, ‘자녀와 함께 만드는 다양한 캐릭터 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두 단체에 각 3회씩 운영해 본 결과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과 장애우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은 자녀들과 함께 활동한 시간에 만족하였으며 장애우들은 협회의 자원봉사자들과 석정여고 학생 5명, 영월초등학교 학생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지부 소속 1명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차량 봉사 및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호야지리박물관은 앞으로도 두 기관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함양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쾌연재도자미술관 <EXCHANGE STROKE PAINTING>展**

쾌연재도자미술관은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EXCHANGE STROKE PAINTING>展을 연다.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재직 교수와 졸업생,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전시로 기성작가들과 신진작가들의 예술적인 역량을 평행선상에서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르침과 배움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되어지고 표출되어진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다.



■ **조선민화박물관 전국농어촌순회 '2015 신나는 예술여행' <민화와 나무의 꿈>**

조선민화박물관(관장 오석환)는 문화순회사업 '2015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으로 <민화와 나무의 꿈>을 지난 11월 4일부터 웅천중학교(전남 여수)를 시작하여 강진, 여수, 보령 등 전국 농어촌 순회에 들어갔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4년부터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주민, 장애인, 노령층, 저소득층, 학교, 다중집합시설 등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연간 2,000여 회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민화와 나무의 꿈>은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조선후기 대중문화를 꽃피웠던 전통 민화를 소개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나만의 개성 있는 민화 목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다.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인생나눔교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주관하는 2015 인생나눔교실의 두 번째 인문소풍이 11월 3일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관장 고명진)에서 진행되었다.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융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선배 세대(멘토)와 새내기 세대(멘티) 간 인문적 소통을 통해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로 위촉된 이들은 모두 19인으로 연극계의 대모 박정자, 발레리나 강수진, 뮤지컬 제작자 박명성, 첼리스트 양성원, 개그맨 김준호, 중앙박스 대표 노재현, 前 국기원 원장 이규형, 소설가 권지에 등이다. 미디어기자박물관의 두 번째 인문소풍은 언론인 노재현(현 중앙박스 대표이사)과 충북 단양중학교 자유학기제 청소년 30명과 함께하였다. 중앙일보 기자 신의 노재현 멘토는 이곳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그 안에서 깨우친 인생의 가치들에 대해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 **목산미술박물관 <한국 수묵화>展**

목산미술박물관(관장 임상빈)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목산미술박물관 미술교실(사우회) 회원들이 그간 소질과 정성을 다하여 갈고 닦은 한국수묵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영월곤충박물관 소장 표본 소개(멸종위기 딱정벌레목 특집)



<비단벌레>
영월곤충박물관 소장표본



<수염풍뎅이>
영월곤충박물관 소장표본



<왕소똥구리>
영월곤충박물관 소장표본

* 비단벌레(*Chrysochroa coreana*): 비단벌레과(Buprestidae)
: 천연기념물 제 496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비단벌레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곤충 중 가장 아름다운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다. 장수하늘소, 산골뚝나비에 이어 2008년 곤충으로는 세 번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천연기념물 제 496호임과 동시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2012년도에는 일본에 서식하는 비단벌레(*C. fulgidissima*) 종과 다른 종으로 판명되어 국내 비단벌레가 현재의 학명으로 신종 기재된 바 있다. 오색영롱한 광채를 띄는 비단벌레는 우리 민족의 고대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곤충으로 5~6세기경에 이미 신라인들은 비단벌레의 화려한 딱지날개를 금속장식 공예에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옷을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품으로도 활용하였다. 그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21년에 발굴된 금관총에서 비단벌레의 딱지날개가 장식된 의류 흔적과 마구 장식들에 의해서다. 고구려 동명왕릉 능원구역에 있는 7호 무덤의 해뿔음무늬 금동장식, 황남대총의 안교장식에서도 비단벌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영월곤충박물관에서는 2009년부터 비단벌레의 인공증식을 시도하여 증식기술을 축적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부설연구소인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증식복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수염풍뎅이(*Polyphylla laticollis*): 검정풍뎅이과(Melolonthidae)
: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수염풍뎅이는 국내의 검정풍뎅이과 곤충들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종으로서 국내 서식지가 매우 제한적인 종으로서 환경부 멸종위기동물 I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더듬이 형태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수컷의 더듬이가 매우 발달해 수염처럼 보여 수염풍뎅이라는 국명이 붙여졌다.

* 왕소똥구리(*Scarabaeus typhon*): 소똥구리과(Scarabaeidae): 현재 국내 절멸 추정

왕소똥구리는 국내 소똥구리과 중 가장 크기가 큰 종이며,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절멸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소 방목지의 감소로 인한 서식지 축소와 배합사료의 사용으로 인한 살충성분이 포함된 소의 배설물 문제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곤충이라 할 수 있다. 영월곤충박물관은 2012년부터 왕소똥구리 복원기술 연구를 위해 도입증식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곡성-영월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통해 왕소똥구리 증식복원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 영월곤충박물관, 농촌진흥청과 함께 왕소똥구리 미기록종 분류

영월곤충박물관(관장 이대암)은 왕소똥구리 증식복원 연구 진행중 농촌진흥청,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사물팀과 함께 공동으로 왕소똥구리의 표본을 수집하여 DNA바코드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염기서열에서 4.5~7.2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종의 왕소똥구리가 국내에 분포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 발견된 왕소똥구리는 ‘*Scarabaeus pius*’란 학명을 가진 종으로, 생김새가 기존의 왕소똥구리(*Scarabaeus typhon*)와 매우 비슷해 그동안 다른 종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새로 밝혀진 왕소똥구리는 대해 ‘작은눈왕소똥구리’로 학계에 보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왕소똥구리들은 2000년에 충남 태안군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후 관찰되지 않는 종들로 현재 거의 절멸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영월박물관협회 6대 회장 박찬갑관장 및 감사 피선

영월박물관협회(회장 오석환)는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박찬갑(국제현대미술관장)과 감사 임상빈(목산미술박물관장)과 정연택(괘연재도자미술관장)을 피선하였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이다.



■ 공지사항

- 영월박물관협회 송년의 밤 행사 -
일 시: 12월 18일(금) 오후6시, 장 소: 솔잎가든(청령포호텔 옆)
참 석: 각 박물관장 및 직원, 군수님, 박물관계, 노노해설사 수료자 등